

1991년 7월 31일 제330호 우편물(나)급인가 제월 1일 발행 등록 제138호 1991년 7월 1일 발행 서울 종로 129番地(朝鮮日報社)(100-756) 편집국장 김승연 제호

月刊 朝鮮



망명 社會安全全部 고위 간부의 秘密증언

그것은 원폭용 재처리시설이다

북한의 對日공작 – 또 하나의 납치.

미국의 韓半島 분할 결정 報告書(全文)

全大協의 正體 – 아님·조직·자금

李承晩의 「인간朴正熙論」

在韓미국인들의 反韓감정

과연 「과잉전압」인가

재벌들의 반격

7
1991

「미야자키 해안 납치 사건」

또 하나의 납치!

- 月刊朝鮮은 피랍자 하라타다 아카가 실종이었음을 확인했다
- 日本경찰은 뻔히 알고도 왜 공개수사를 포기했는가
- 「恩惠납치」의 배경인 북한공작원에 의한 日本人 연쇄납치의 실상

權 荣 昊

한간조선투기자



『내 손으로 일본인을 납치했다』

일본경찰이 KAL기 납치범 金賢姫의 일본말 선생 「恩惠」가 일본에서 납치된 일본여자 다구치 야에코 씨 (田口八重子·가명·35)라고 발표한 것은 한일 양국에 모두 충격적이고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일본

경찰 당국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보고 있는 일본인은 지금까지 이름이 거론 된 사람만도 13명이 있다고 지난 5월 16일자 일본 도쿄신문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자국민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다구치씨 사건밖에 없다. 일본 경찰은 다구치씨가 어떤 상황에

하라 타다아키가 1980년 6월 납치되자 직전까지
근무했던 오사카 쓰루하시 소재



지난 85년 2월 만기부에 검거돼
하라를 납치했다고 밝힌
북한 거물·간첩 추광洙

서 어떤 경로를 거쳐 북한으로 납치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일본경찰은 그가 「자의반 타의반」 형식으로 북한에 갔을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다구치씨가 1978년 6월쯤 일본 내 북한 조직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지난 5월 15일 밤, 일본경찰

과 한국 안기부의 이같은 「다구치 남 치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레이비전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다. 그러나 내 머리 속 한 귀퉁이에서, 5·16년 전 안기부가 검거했던 한 간첩이 일본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일본인을 직접 납치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적이 있다는 어려운 기억을 다시 끌어 낼 수 있었다.

며칠 동안은 이 문제를 확인할 거를 이 없었다. 얼마 후 회사 조사부에서 북한 간첩사건 기사 스크랩을 뒤져 보았다. 1985년 6월 28일 안기부가 발표한 이 사건의 개요는 「북한의 거물 간첩 후광洙(당시 56세)와 후에게 포섭된 재일교포 간첩 두 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후이 자신의 신분위장을 위해 일본인 하라 타다야 키(原敷晃·80년 남자) 되던 당시 44세)를 북한으로 납치했다」는 것이었다. 하라 타다아키가 납치된 정황과 과정 등도 안기부 발표문을 인용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후광洙는 일본인임을

접 자신의 손으로 납치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데려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 「온해」의 납치 과정이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는 터에 납치한 사람이 직접 납치방식과 그 과정을 실제로 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11년동안 잊혀졌던 사건

나는 후광洙가 하라 타다아키를 납치했다는 당시 보도가 왜 한일 양국 국민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지부터 생각해 보았다. 물론 당시 한국과 일본 양국 신문들은 「일본인을 납치해 신분을 위장, 간첩활동을 해왔던」 후광洙 검거 사실을 비교적 크게 취급 했었다. 일본 경찰도 한국 안기부가 후광洙 검거 사실을 발표한 후 하라 납치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후 한·일 양국의 언론은 하라 타다아키 납치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았다. 일본 경찰 역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었다.

金賢姬가 「온해」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진술했던 때는 지난 88년 2월 안기부의 KAL기 폭파 수사 과정에서였다. 그후 일본경찰은 한국 안기부의 협조 아래 3년 3개월 동안 온 혜의 신원을 끈질기게 추적, 다구치 씨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비교하면 하라 타다아키 건(件)은 일본에서도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 돼온 감(感)이 없지 않다.

한국 내에서는 국내 문제에 너무 깊숙이 관여해왔던 안기부의 과거 좋지 않은 이미지가 후광洙 검거 발표 때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하고 손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민을 납치했다는 북한 간첩이 나타났는데도 왜 그후 명확한 입장표

명조차 없이 넘어갔을까. 나는 한일 양국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하라 타다아키 사건」이, 현 시점에서 다시 조명돼야 할 필요와 당위성을 바로 그 점에서 찾았다. 이 기사는 「하라 납치」라는 잊혀졌던 사건 위에 내려앉은 「먼지와 끔팡이」를 털어내고 헛별 아

하라 타다아키가 정말 북한으로 납치됐는지를 가리기 위해선 하라를 납치했다고 자백한 후광洙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은 하라 타다아키 명의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로 신분을 위장한 채 국내에 잠입했다가 1985년 2월 24일 안기부에 붙잡혔다.

했다. 더구나 후광洙 간첩단 사건엔 물적 증거가 충분하게 제시됐다. 일례로 후광洙가 웃깃에 숨겨 들어온 독약 앰플은 북한 공작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金賢姬가 자살을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일본측에서도 일본국민의 신분증명을 완벽하게 갖



나는 한일 양국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하라 타다아 키 사건」이 현 시점에서 다시 조명 돼야 할 필요와 당위성을 바로 그 점에서 찾았다. 이 기사는 「하라 납치」라는 일화였던 사건 위에 내려앉은 「언자와 곰팡이」를 털어내고 헛별 아래 드러내보이기 위한 것이다.

치겠는지를 가리기 위해선 하라를 남 치했다고 자백한 후광洙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은 하라 타다아키 명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로 신분을 위장한 채 국내에 잠입했다가 1985년 2월 24 일 안기부에 붙잡혔다. 안기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후은 어떻게 하라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를 추궁받자 하라 타다아키를 북한으로 남자했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다 고 한다.

실종이름여부 확인위해 일본으로

후이 과연 북한 간첩인가? 이러한 의문 제기는 분명 한국적인 현상의 하나이긴 하지만, 한번쯤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살고 있는 형제들이 과거 그의 월북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물론 증거가 충분하게 제시됐다. 일례로 후광洙가 옷깃에 숨겨 들어온 독약 앰플은 북한 공작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金賢姬가 자살을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일본측에서도 일본국민의 신분증명을 완벽하게 갖도록 제기한 바가 없다. 일본 경찰은 춘 후광洙를 한국수사기관이 간첩죄로 기소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이를 제기한 바가 없다. 일본 경찰은 하라 타다아키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오히려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 다.

하라 납치사건의 진실에 이르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라 타다아키가 실제로 (實在)했던 인물이나를 확인하는 것 이 일차적인 관문이다. 실제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는 점도 이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하라가 남자된 곳은 일본 땅이었고, 그는 남자되었던 전 오사카에서 살았다. 그를 치료하기 시작한 오사카에서는 남자였다는 사람들도 당시 모두 오사카에 살았다. 오사카는 사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남자 현장이라 할 만했다.

辛光洙 및 그와 같이 잡혔던 그의 하부망인 金國日(가명·현재 63세)에 의하면, 하라 타다아키의 남자엔 후·金 이외에 李吉柄(당시 69세·조총련 오사카 상공회장), 李三俊(당시 50세·조총련 오사카 상공회 이사장)이 가담했다. 辛光洙가 李吉柄에게 남자 대상인 물색을 부탁했고, 다시 李吉柄의 부탁을 받은 李三俊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중국음식점 보해루의 요리사였던 하라 타다아키를 적합한 인물로 추천, 네 사람이 같이 하라를 납치했다는 것이다. 하라를 납치했다는 때는 지금부터 11년 전인 1980년 6월이다. 10년 넘은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사건의 현장엔 반드시 무언가 흔적이 남아 있게 마련이다.

나는 지난 6월초 오사카로 날아갔다. 하라가 납치당할 당시 살았다는 타바타 맨션을 찾았다. 지하철 쓰루하시(鶴橋)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주변에 중·소형 공장들이 여기 저기 널린, 주택과 공장이 혼재한 지역이었다. 타바타 맨션은 7·8평 정도

의 허름한 아파트였다. 4층 건물인 타바타 맨션 1층의 관리인실은 텅비 어 있었다. 관리인실 맞은편 집 여자에게 물어봤으나, 관리인 이름도,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관리인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 가끔 와본다는 것而已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 맨션 1층 도로쪽에 입주해 있는 인쇄소에 문의해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다시 한번 가봤으나 역시 관리인을 만날 수 없었다. 하라가 살았던 움집 2백 3호실을 비롯, 여기 저기 문을 두드려 혹시 하라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가 물어봤으나 모두 고개를 내저었다.

비공개 증언메모 일수

안기부가 1980년 당시 공개했던 보도자료나 재판 기록엔 하라 타다아키의 학·경력 주민등록표나 회적상에 기재되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나는 하라남자 사건을 취재하며 그

가 좀 모자란 듯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58년부터 20년을 넘게 중국 음식점 요리사로 일했으면서도 요리사자격 제 윤지도 모른다고 했다. 요리사로는 만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조요리사였다. 나이 마흔 넷(1980년 당시)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그가 왜 그토록 어수룩하게 미야자키의 아오시마 해변까지 따라갔는지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남자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일부만 기사화되었었다. 나는 이 취재를 통해 현재 마이니치 신문 오사카 본사의 한 경찰 출입 기자로부터 전해받았다. 마니니치신문의 취재에도

당시 집세는 월 1만엔이었는데 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단 내기는 냈다. 짐은 이불과 취사도구 조금뿐. 당시부터 (이 맨션에) 남아 있는 사

大阪에 있는 무역회사 창고지기로 근무하게 됐다"고 좋아했다.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는데 연락은 없었다. 어느 회사냐고 물었을

해 받았다. 마니니치신문의 취재원은 하라의 인물됨에 관한 한, 내가 그동안 취재하며 접했던 어떤 사람의 종언이나 관계자료보다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취재원에 의하면 1985년 6월 당시 타바타 맨션 관리인 하나무 라사치에 써는 마이니치 신문 기자에게 하라 타다아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75년째부터 80년에 걸쳐, 2백 3호실에 하라라는 남자가 살았다. 40세 전후에 키는 1백 70cm쯤, 마른 듯한 몸매로 멍청한 데가 있는 느낌의 사람이었다. 검은 턱, 안경을 쓰고 머리길이는 7부쯤 됐다. 혼자 살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전화 도 오지 않았다. 시선은 언제나 아래를 보았고, 말투도 우물쭈물하는 식이었다. 집을 해약하고 나가게 되어 연락처를 물어봤으나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다.

당시부터 (이 맨션에) 남아 있는 사람은 2백 12호실의 마쓰다(松田)씨 밖에 없다』

(지금은 그 자리에 인쇄소가 들어서 있다)의 주인 내외와 단골손님 하마노(濱野)씨의 종언은 하라 타다아키가 왜 그토록 어수룩하게 辛光洙 등을 따라갔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80년 6월 취직한다고 종적 감춰

『하라는 여기서 자주 술을 마셨다. 좀 머리가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 얼굴은 곱보였고 온 몸에 부스럼이 나 있었다. 나가사키 (長崎)에서 태어나 마쓰에(松江)로 갔으며 마쓰에에 배가 다른 누이가 있다고 말했다. 낚시와 장기, 바둑이 취미였다. 운전면허는 없었다. 80년 계 근무하던 보해루를 그만뒀다. 「아는 사장의 소개로 히가시 오사카(東

연락은 없었다. 어느 회사냐고 물었지만 말을 열어버렸다. 평소 사람들 이 그를 잘 봐 주는 일이 없었으므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나가고 나서 연락이 끊겼다. 보해루에 근무하기 전에 아베노(阿倍野) 플레스토랑, 사키이(堺) 니시노미야(西宮)에서도 일했다고 말했다. 요리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 같다. 정치에 흥미를 가질 사람이 아니다. 유혹을 받으면 주대없이 따라갈는지 모르겠다』

辛光洙와 金國日이 수사 과정서 털어놓은 그대로였다. 辛·金은 취직을 미끼로 하라를 유인했으며, 「사무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로 옮긴다고 소문내면 이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라에게 말했다고 전술했었다. 하라가 음식점

주인 내외에게 사무원이 아니라 창고
지기로 근무하게 됐다고 말한 사실과
그대로 부합된다.
하라 타다아키는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사고무친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가까이 지낸 친구도 전혀
없었다. 1985년 하라 남치사건이
알려졌을 때 일본의 각 언론사가 뛰어
나타나지 않았고, 사진 한 장 구하지
못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
자신의 호적에 입적했던 것 같다. 그
의 아버지 하라 미치히사(原道壽)는
1967년에 죽었고, 호적상 어머니
하라 카메노는 1938년 그가 두
살 때 죽었다. 생모인 하라 시지에도
죽었으나, 언제 사망했는지 알리지
않았다. 그의 이복형 하라 코지(原康
二)는 1960년에 나가사키시에 살
았으나, 하라 타다아키가 자신을 도
와주지 않는다고 집을 나온 후 한번
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보해루는 아직도 李三俊이 주인
하라가 근무했던 보해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
인도 아직 李三俊이었다. 보해루는
오사카에서 한국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쓰루하시(鶴橋) 지역에 있는데,
지하철 쓰루하시역 출구 바로 옆이었
다. 하라가 살았던 타바타 맨션에서
가까운 거리다.

도로에 면한 쪽의 풀이 좁은 텁인
지 4층 건물 가운데 1·2층을 쓰고
있는 보해루의 1층은 탁자를 전혀
놓지 않고 스텐드 바같이 꾸며놓았
다. 스텐드 안쪽에 「위생 책임자 星
山俊夫」라고 쓰인 명판가 걸려 있었
다(星山俊夫는 李三俊의 일본 이름).
보해루를 방문했을 땐, 종업원인 듯
한 40대 남자와 50대 여자가 있었다.
여자에게 「李三俊씨를 만날 수 있겠
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없다.
왜 그러냐?」고 되물어 왔다. 잠시
기다려봤으나, 李三俊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의 얘기로는 「가게엔 잘

들르지 않는다」고 했다.

李三俊은 조총련 오사카 상공회의
이사장을 지내고, 현재는 별 직책
을 맡고 있지 않지만 끌수 조총련 사
람으로 남아 있다. 직접 하라 남치에
가담하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
하는 않으리라 생각하면서도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진상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나는 그가 사는 히가시 요도
가와 지역의 조총련 지부를 통해 그
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아침 일
찍 李三俊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목
소리가 굵은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李三俊씨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자신이 李三俊이라고 했다. 일본말을
계속 하려 해서 한국 말로 하자고 얘기
하자 한국 말로 응대해 왔다.
나는 먼저 내 신분부터 밝혔다. 그
리고 하라 타다아키 건(件)에 대해
물어 볼 게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
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하고 잘라
말했다. 내가 「하라가 보해루에 근무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정도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물었

가시 미구니 4정목(丁目) 11번지 대
로변에 그의 집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서도 반응이

「전혀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 그는 「일체 그런 얘기하지 마시
오. 난 바쁜 사람이니까 전화 끊을 시
다」며 수화기를 내렸다.
만약 그가, 하라 남치 사건에 가담
하지 않았다면 그건 식으로 양재화된

새로운 情報 月刊 韓

신서한話題

1985년 6월 마이니처 신문 경
찰기자에게 그는 하라에 대해서 이렇



하라가 납치될 당시 살았던 오사카 히가시오 바시에 있는 타비타 맨션.
하라는 1975년부터 납치될 때까지 타비타 맨션 2동 3호실에 세를 얻어 살았다.

다. 그는 일체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 난 바쁜 사람이니까 전화 끊을 시다며 수화기를 내렸다.

만약 그가, 하라 납치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응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히가시 요도가와구 히

가시 미구니 4정목(丁目) 11번지 대로변에 그의 집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서도 반응이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나는 한 재일 교포를 통해 그와의 접촉을 시도해 봤다. 그러나 그는

「전혀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1985년 6월 마이니치 신문 경찰기자에게 그는 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다(역시 마이니치로부터 전해받은 취재 메모에서 인용).

「하라는 80년께 2~3개월 고용했다. 전에 경영하던 사람으로부터 계약 종업원을 그대로 인계받았다. 언뜻 봐서 불결해 보여 손님들이 싫어했다. 그만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스스로 그만 둔다는 말을 꺼냈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했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 「체력도 없고 여름엔 지쳐서 쉰다」고 얘기했다.

두 아들 北送시킨 李吉柄

1978년부터 1980년초까지
보해루를 운영하다 李三俊에게 보해루를 팔았던 吳모씨(85년 당시 58세)
는 마이니치 신문 기자에게 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80년께, 제가 스스로 가게에 들어

와 「요리 경험이 있으니까 고용해 달라고 했다. 이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놨다. 우선 그런 대로 고용해 봤다. 혼자 살았고 몸이 가늘며 안경을 끼고 있었다. 40세 전후였다 고 생각한다. 히가시나리구(區) 히가시 오바시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웃차림이 불결해서 주의를 끌더니 절근하기 시작했다. 근무하고 반년쯤 지나서 결근이 잦았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 얼마 안 돼 그 만 둔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인이 바꿔자 제 마음대로 다시 출근한 것 같다. 현재 주인 李씨와는 30년 동안 사귄 사이로 안심하고 가게를 알겼다.

1980년 당시 조총련 오사카 상공회의 회장이었던 李吉炳은 하라 남치 외에도 辛光洙의 간첩 활동을 여러모로 도왔던 사람이다. 그는 현재 오사카의 조총련 산하 각급 단체의 고문들로 구성된 고문단의 최고 원로이다. 그의 두 아들은 현재 모두 북한에 있다. 1960년 대초 재일교포 북송이 시작됐을 때, 남보다 앞장

서서 그는 두 아들을 북한 땅으로 보내고 한다. 아들을 모두 북쪽에 보내고 딸만 일본 땅에 살다고 한다.

辛光洙가 李吉炳에게 처음 접근할 때, 후은 그의 아들의 사진과 자필 서신을 보여주었다. 그가 후의 활동을 적극 도운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랄 수 있다. 말하자면 두 아들이 북한 땅에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다.

李三波을 만나려는 시도가 전화 통화만으로 끝난 터라 李吉炳과의 접촉 시도는 재고해봐야 했다. 주변에 일본 결과, 李吉炳 부부는 며칠 안으로 북한에 사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인질」로 잡혀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마당에 자기 입으로 하라 남치의 진실을 밝힐 가능 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됐다.

나는 일본에 가서 현장을 확인취재 하는 외에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辛光洙·金國日 수사 관련 자료·재판 기록 등을 입수했다. 辛光洙를 면회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했으며 지난 해 5월 특사로 출감, 현재 국

내에 살고 있는 金國日을 만나 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래서 하라가 어떻게 남치 대상 인물로 선정되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미야자키의 아오시마 해안에서 북한 공작선으로 끌려갔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어두운 참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하라 타다아키 남치 사건」을 참고 밖으로 끄집어내 사건의 진상과 만나보도록 한다.

거물간첩 辛光洙의 정체

辛光洙는 1929년 6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태어났다. 5남 2녀 중 5남으로 출생한 그는 도야마 현의 다카오카 공예학교 3학년 재학 중 8·15를 맞아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 1946년 4월 포항중학교 2학년에 편입해 다니던 후은 3학년 때 부터 좌익 학생 운동에 뛰어들었다.

기자
생소스는 화제 넘치는 교양

된다. 과거 조총련 오사카 초급학교 교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부인과 함께 오사카 쓰루하시역 근처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하고 있던 金國日이었다. 金은 후일 후의 일로 金國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어 서울로 도피해 보성중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 그는 6·25가 일어나자 의용군으로 자진 입대했고 6·25가 끝난 후 인민군을 따라 이북으로 올라

이 때 물에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어 서울로 도피해 보성중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 그는 6·25가 일어나자 의용군으로 자진 입대했고 6·25가 끝난 후 인민군을 따라 이북으로 올라갔다.

辛光洙는 휴전 후 북한에서 상당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53년 특무상사로 체대한 그는 해외 유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공업대학 기계학부에 유학하고 돌아왔다. 1960년 북한으로 귀국 한 후엔 10년간 북한 과학원 기계공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가 대남 공작원으로 소환된 것은 1971년이었다. 그는 그해 2월

북한 민보성(현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 198부대 대남공작원으로 소환되어 2년 5개월 간 정치사상교육 · 정보학 · 과학 등 실무 교육과 첨통신 교육 등 밀봉 교육을 받았다.

辛光洙가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된 데는 그가 일본에서 중학교 교육까지

받아 일본어에 능통하고, 루마니아에 유학한 경험이 있어 국제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한에 그의 형제들이 남아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다.

辛光洙는 1962년 4월 북한에서 李元求(현 57세)와 결혼, 1남 3녀를 두었다. 현재 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후은 언젠가 「부인이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문자 「그까짓 마누라, 당에 서 시켜서 결혼했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누구보다도 어린 딸들이 가 장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辛光洙는 대남 공작원 교육을 받은 후 1973년 7월 공작선편으로 차로 일본에 잠입하게 된다.

정보기관 개편으로 조사부 소속돼 그는 1976년 9월 북한으로 1차 귀환할 때까지 북한에 가족을 둔 재일교포 포섭, 일본 내 활동거점 마련 등에 주력했다. 이 기간 중 후은 그 후 하라 타다아키 남치사건에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는 협력자를 얻게

된다. 과거 조총련 오사카 초급학교 교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부인과 함께 오사카 쓰루하시역 근처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하고 있던 金國日이었다.

金은 후일 후의 일본인 남치에 적극 협력, 하라 타야아키 외에도 여러 명의 남치 대상자를 물색하고 하라의 남치에도 직접 가담했던 인물이다. 辛光洙는 金에게 북한에 있는 그의 처남 李재희를 인질로 삼아 접근, 하부방으로 포섭했다. 金은 후으로부터 「미단에 위장 전향하고 남한에 있는 친척들을 끌어들여 지하 조직을 구축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辛光洙가 다시 평양에 소환된 것은 당시 辛이 소속돼 있던 대남 공작기구인 민보성 198부대와 사회안전성 15국이 통합돼 당 중앙위 조사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이었다. 후은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당시 대남 공작 담당비서 金仲麟과 조사부장 李完기로부터 대남공작기구 개편 사실과 그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작원이 전부 소환되었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진술했었다.

후이 평양에 소환됐을 무렵 북한의 노동당 정보기관은 일대 개편을 단행 한다. 현재 북한의 정보기관으로는 조사부·연락부·작전부·통일전선부 등 4개의 부서가 있다. 이 가운데 조사부와 연락부의 비중이 높다. 특히 조사부는 납치·테러·해외첩보 등 임무를 맡고 있으며 金正日이 직접 통제·지시를 내린다고 한다. 나머지 3개 부서는 金正日의 관찰하에 당 대남사업 담당 비서가 통제한다. 金賢姬가 소속됐던 곳도 조사부였고, 崔銀姬·申相玉 부부·납치 사건도 조사부가 일으켰던 것이었다.

개편된 대남 공작기관인 노동당 조사부에 소속하게 된 金光洙는 본에 다시 침투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6년 9월부터 평양 용성 5호 초대소·순안 4호 초대소에 수용되어 다시 밀봉간첩 교육을 받았다. 그는 여기서 일본의 정치·경제·사회·군사·문화·풍속 등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일본의 각종 정기간행물과 책자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이때 일본에서의 「합법 신분 쟁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파견을 연기하는 金正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즉 1980년 2월 하순 용성 5호 초대소에서 교육을 받던 중 金○○ 지도원으로부터 「후선생을 일본으로 다시 파견하려고 했으나, 과거 1백 98부 대원으로 있을 때와는 달리, 완전한 합법 신분을 얻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당 중앙(金正日을 지칭)의 지시에 의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金國日이 대상자 물색

辛光洙가 1980년 4월 다시 일본에 밀파될 때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란 비교적 오랜 기간 2차 밀봉교육을 받았던 것은 일본에서의 합법적 인신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북한 노동당 조사부는 여러 명의 일본인 납치 대상자를 물색했었다. 대상자 물색에는 金國日이 동원 됐다.

량)에게 부탁, 우성일의 밑에서 일하던 야마모토(山本, 당시 45세 가량)라는 일본인이 적합하다는 회답도 들었다.

접 일본에 가서 적당한 인물을 납치해오도록 결정됐다는 사실을 후에 통보했다.

「이제야 상부에서도 우리를 조직성

金國日은 1978년 1월 일본에 침투한 북한 간첩 「오야마」(45세 가량, 한국 이름 韓模)와 접선, 그의 지시에 따라 일본 후쿠이 오오이초 해안에서 공작선을 타고 일본·평양에서 약 20일간 간첩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 그는 북한의 공작 지도원으로부터 「전과가 없는 45·50세 가량의 득신 일본인과 20대 미 혼 일본 여성을 포섭·입북 시킬 것」 등의 지령을 받고 같은 해 4월 20일 공작선 편으로 다시 오오이초 해안을 통해 일본으로 되돌아 왔다.

金國日은 1978년 10월 초부터

납치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시즈오카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채일 조충련 친지 한창웅(당시 36세 가량)에게 연락했다. 한 달 후 인 11월 초엔 한창웅을 방문해 시즈오카 출신으로 이나도리에 사는 반도(坂東, 당시 43세 가량)라는 토목공사장 노무자를 적합한 인물로 추천받았다.

그는 또 오사카에서 폐품수집업을 하는 고향 친구 우성일(당시 53세)가



辛光洙가 소지하고 있던 하라 타다아끼 명의의 여권·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 등 각종 신분 증명 서류.

량)에게 부탁, 우성일의 밀에서 일하던 야마모토(山本, 당시 45세 가량)라는 일본인이 적합하다는 회답도 들었다.

금국은 1979년 3월 일본에 침투한 공작지도원 金○○를 도쿄 국제호텔에서 만나 이들 대상 인물들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나 金은 이들이 적합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반도는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고, 아마 모도는 차와 떨어 시즈오카에 살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金正日이 직접 납치지시

1979년 말이 되자 북한의 대외 조사부는 金光洙를 일본으로 파견, 일본인을 직접 납치할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金光洙가 평양의 용성 5호초대소에서 일본 재침투 교육을 받고 있던 1980년 2월 하순, 그는 조사부 소속 金과장, 솔지도원의 소환을 받았다.

金과장은 이 자리에서 金光洙가 직

접 일본에 가서 적당한 인물을 납치해오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을 후에게 통보했다.

“이제야 상부에서도 우리들 조직성 원의 힘만으로는 후선생의 합법신분을 쟁취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후선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본에 일단 침투하여 직접 합법신분 쟁취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는 승인이 났으니 이제부터 일본에 다시 침투할 준비를 하십시오.”

金光洙는 다음날부터 한 달 동안 과장의 지도 하에 일본에 다시 침투하여 전개 할 공작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후이 납치할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① 일본 사람일 것 ② 연령은 45세 내지 50세가량으로 金光洙 본인과 비슷한 연령일 것 ③ 독신자로서 일가 친척이 없는 무부 무부자일 것 ④ 일본 경찰에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전과자가 아닌 자) ⑤ 여권 발급 및 외국여행 사실이 없는 자일 것 등으로 결정되었다.

“후은 金正日로부터도 납치 지령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일본 침투를 위해 대기하던 중, 金正日의 3호 청사(대남 공작 부서)가 있는 청사(집무실로 불려갔다). 金正日은 후광洙에게 납치 대상인 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일본인 남자 가운데 나이가 45~50세 정도의 독신자로 일가친척이 없고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당국에 사

진을 제출했거나 전과로 인해 징문을 낸 인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부채 등 금전거래는 물론, 은행거래가 없는 사람을 고르라. 대상 인물이 없어지더라도 친척이 찾거나 행방불명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인 신분으로 위장하면, 일본에서 적극적인 대남 사업을 수행하라』

후광洙는 1980년 4월 10일 남포 항에서 공작선을 타고 출발,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宮崎県 日向市) 해안으로 침투했다. 후은 일용 노무자·실업자들이 투숙하는 간이 숙박소가 밀집돼 있는 오사카시 아베노구 덴노 지조 기타(大阪市 阿倍野区 天王寺町 北) 소재의 한 간이 숙박소에 투숙하

고 대상자 물색에 나섰다.

후광洙는 지상령인 김정일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모로 궁리하였으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기왕에 대상자를 알아보는 데 동원됐던 金國日을 이 일에 다시 동원하기로 했다.

하라(原)가 납치대상자로 등장

그는 5월 초 金國日을 그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임무를 소상히 설명하고 밤을 새워 이에 대한 해결책을 토의했다. 다음날 아침 金國日이 「시즈오카 시 모다시에서 사촌 동생이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한국인으로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렸을 때 일본인에게 양자로 입양된 40대 남자가 독신으로 살고 있다 하니 가서 확인해 보자」라는 말을 했다. 후

은 金과 같이 시모다시에 가서 내탐 했으나 대상자가 최근 선원 자격시험에 합격되어 선원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어 포기했다.

다시 두 사람이 오사카에 산재된

간이숙박소와 각종 노동판으로 떠돌아 다녔으나 납치할 일본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후광洙는 5월 하순 조총련 오사카 상공회 회장이면 李吉柄에게 연락했다. 李는 60년대 초 앞장서서 그의 아들을 북송한 조총련의 핵심 인물이었다. 후은 북한에 있는 그의 두 아들의 사진과 자필 서신 등을 보여주며 일본인 한 명을 조국에 꼭 보내야 하는데 그동안 아저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혼자 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잘 되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꼭 알아봐 주셔야겠습니 다고 말하며 대상 인물이 구비해야 할 조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후광柄은 이를 후 후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직접 알아볼 만한 곳이 없어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신임하는 李三俊 이사장에게 조국에서 일본인 한 명을 데려 가겠다고 하는데 사람을 한 명 물색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삼준이 어제밤에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물색하기도

힘들고 또한 이런 일을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도 없어 생각다 못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중국요리점 보해루 종업원 중 일본인 하라 타다아키라는

계속 할 수 없지 않느냐. 사무직으로 가면 술도 적게 마시게 되어 건강해지고 장가도 가서 살림을 꾸리게 될 것이다. 내 친구가 당신 얘기를 하니

시오바시(大阪市 東成区 東小橋) 2-1
4-23 타바타 멘션 2백 3호
생년월일 · 1936년 8월 2일
학력 · 경력 · 1950년 가쓰케이

•약 줄다고 남용말고, 약모르고 오용말자.

카네스텐

무좀치료 파트너



카네스텐 Bayer

번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또한 이런 일을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도 없어 생각다 못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중국요리점 보해루 종업원 중 일본인 하라 타다아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적합한 인물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李光洙는 이 말을 듣고 李三俊을 즉시 만났다. 李三俊은 하라 타다아키의 주민표와 이력서를 들고 나타났다. 李는 하라를 유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내 친구가 큰 무역회사 사장인데 상업학교 출신을 한 사람 소개해 달라고 해서 당신을 소개했다. 당신은 몸이 약하니 이렇게 식당 요리사일만

계속 할 수 없지 않느냐. 사무직으로 가면 술도 적게 마시게 되어 건강해지고 장가도 가서 살림을 꾸리게 될 것이다. 내 친구가 당신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하니 회사에 제출할 이력서, 호적등본, 주민표 등본을 만들어 오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으로 옮길다고 소문을 내면 질투를 내

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말하지 말아라』

李三俊이 내놓은 주민표 등본과 이력서상에 나타난 하라 타다아키의 인적사항은 이랬다.

『본적... 시마네현 마쓰에시 덴진조 (島根県 松江市 天神町) 45-9 주소...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히가교 3년 중퇴.』

후은 하라가 지문날인한 사실이 있 는지 궁금하여 李三俊에게 하라의 전과 사실을 물었다. 李三俊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전과도 없고 독신으로 일가친척도 없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외국여행을 한 사실도 없 고 누구한테 금전을 차용했거나 외상

시오바시(大阪市 東成区 東小橋) 2-4-123 타바타 팬션 2백 3호
생년월일... 1936년 8월 2일
학력·경력... 1950년 마쓰에시 소재 시라가타(白瀧) 소학교 졸업
1953년 나가사키시 소재 사쿠라바바(櫻馬場) 중학교 졸업
1956년 나가사키시 시립상업고

술을 먹은 사실도 없으며 소득세 신고 사실도 없고 건강보험 신청 사실이나 연금 가입 사실도 없으며 은행에 구좌를 개설한 사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고 대답했다.

辛光洙는 李三俊에게 「조국에 보낼 때까지 그의 신변을 잘 보살펴 주고 그의 호적을 입수하여 정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고 말했다.

미야자키가 납치장소

辛이 그날 숙소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 보니 하라 타다아키 만큼 적합한 인물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하루속히 납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날 오사카시 기타쿠 우메다 소재 오사카 국제전보국 본국에서 「납치 대상인물을 몰색하였으니 대동 복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줄 것」 이란 내용을 암호로 된 국제전보로 발송했다.

5월 말 경 불한 방송을 청취, 북으로부터 「대상물색에 대한 동무의 노

고를 당 중앙(김정일 지청)에서 높이 치하하고 있음。접선 조직에 따라 행 동할 것。접선일시는 80년 6월 20일 21시, 접선장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아오시마 해수욕장 아동공원 남쪽 끝 작은 도랑。6월 20일(접선 1일 전) 23시, 6월 21일(접선 당일) 19시 2회 접선조직 이상 유무에 대한 전문을 수신할 것。정상 접선 신호는 29627(辛光洙의 생년월 일)이라는 지령을 수신했다。

辛光洙는 6월 초순 조총련에서 경영하는 요리점인 오사카 소재 명월관에서 李吉炳、李三俊을 다시 만났다. 그는 李三俊으로부터 호적등본과 초본을 넘겨 받아 하라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며 형제도 없이 혼자 된 사실을 확인했다. 후온 이런 일엔 만일을 생각해서 3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두 사람이 접선장소까지 같이 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李吉炳이 「나나 李三俊이 사장은 총련 합법 일꾼이기 때문에 같이 가기는 고려할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辛光洙는 「그러면 이상준 이사장이 일정한 장소까지 안내만 하도록 합시다。즉 그가 도용인물 대상을 데리고 아오시마 다치바나(青島橋) 관광 호텔까지만 가기로 하고 저와 김국일 선생이 접선 당일 저녁 8시 반 경 그곳 호텔에 도착하여 그 사람에게 산책이나 하자고 유인하면 그때 이상준 이사장은 즉시 택시를 타고 떠나 버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고 제안하여 동의를 받아냈다.

辛光洙는 金國日을 그의 집으로 방문했다. 그가 하라 납치 계획을 설명하자, 金國日은 「洪선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고 웅낙했다. 金國日은 辛光洙를 洪万植으로 알고 있었다. 辛光洙는 일본에서 활동하며 辛洙光、洪万植、黃方植이란 한국 이름 외에 사카모도(坂本)란 일본식 가명을 사용했다. 金國日이 1985년 안기부에 잡혀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辛光洙의 본명을 모르고 洪万植으로만 알고 있었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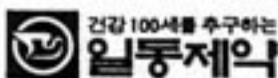
입니다.

십이지장궤양치료에 위염·위궤양,

- 위산분비차단, 위점막 보호작용
- 1일 1~2회 간편한 복용(300mg)
- 재발 방지요법: 1일 1회(150mg)

큐리

표준소매가격: 150mg 60정 44,000원
300mg 30정 43,000원



건강 100세를 추구하는
일동제약

은 하라 납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며칠 후 오사카역 부근 신미도스지(新御都筋)에 있는 복어요리 전문 일식집에서 만났다. 金國日이 약속 시간보다 두 시간 늦은 오후 8시에 도착했다. 이들은 하라를 납치하기 위해 치밀한 역할분담과 일정표를 짬다.

아오시마해변 사전 정찰

辛光洙는 접선장소에 대한 사전 정찰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6월 중순 어느 날을 잡아 신오사카역에서 9시 30분 신간선 편으로 출발하여 13시 경 후쿠오카현 고쿠라(小

倉)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다시 日本線으로 갈아타고 동일 17시경 미야자키현 미야자키(宮崎) 역에 도착했다. 다시 버스를 타고 30분간 달려 아오시마(青島)에 도착했다. 시내와 해수욕장 주변을 관광하는 양 정찰하고 접선장소인 아동공원 주변과 그 곳 가로미에 가와(川) 하류를 살펴보았다. 아오시마 다치바나 관광호텔에 들어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 8시 30분경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다음 접선 장소 부근 술발을 지나면서 세밀하게 정찰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야간 열차를 이용해 오사카로 돌아왔다.

하라에 대한 면접실시를 하는 것으로 약속된 날짜(접선 2일전)가 다가 왔다. 辛光洙는 약속 장소인 우에다 일본 요정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시간 전 金國日의 집으로 먼저 가서 金國日과 함께 약속 시간인 오후 7시 일본 요리집에 당도하였다. 李三俊의 인사 소개가 끝난 뒤 李吉柄이 하라에게 「어서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해주기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받아 李三俊은 「우리 점포에서도 내놓기 매우 아까운 사람이나 사장의 부탁이라 할 수 없이 양보하니 하라 타다아키 군을 잘지도 해 훌륭한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능청을 떨어 하라를 안

심시켰다.

李吉柄이 가방 속에서 1백만엔 돈
뭉치 하나를 꺼내어 辛光洙에게 건네
주면서 「전부, 나는 바쁜 상담 때문
에 다른 곳에 가야 하니 제군들끼리
여행이나 하면서 놀다가 며칠 후 미
야자키에 있는 내 별장에서 다시 만
나자」고 말하고 먼저 나갔다. 辛光洙
는 어색해지는 자리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이제 사장도 잤으니 우리 웃통
벗고 마음껏 술이나 마시자. 그리고
관광도 해가며 미야자키로 가자」고
말한 후 술을 마셨다.

이틀간 시간 보내며 확인교신

이들은 8시경 일본 요리집을 나왔
다. 李三俊이 하라를 데리고 오사카
역으로 갔으며 金國日과 辛光洙는 어
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감시하며 뒤따
라갔다. 9시쯤 오사카역에서 약간 열
차면에 李三俊과 하라는 침대칸에,
辛光洙와 金國日은 다른 칸에 몸을
실었다.

다음날(점선 1일전) 아침 5시쯤

하라는 수상한 자의 출현에 술이
반항하자 재갈을 려 자루에 넣어

이들은 벳푸(別府)역에 도착했다. 이
들은 역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서로 다른 호텔에 각각 투숙했다. 辛
光洙와 金國日은 온천거리를 관광하
면서 하루를 보내고 호텔로 돌아와
고 접선 정상주진 여부에 대한 A-
2 전문 지령을 받고 비상신호 296
27(정상주진)을 확인하였다.

다음날 오전 11시경 벳푸역에서 李
三俊과 하라가 日豐本線을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辛光洙조는 2시간 동
안 다치나 공원, 미야자키 신궁(神
宮) 등과 상가를 구경한 후 오후 4시
경 버스편으로 아오시마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시내를 관광하고 시간을
보내다 7시경 불고기 집에 들어가
저녁식사를 했다. 그곳 화장실에서
A-12 전문을 수신, 접선시간이 변
동없다는 신호인 29627을 재학
인하였다. 사전에 약속된 대로 오후
8시 30분 미야자키 해안의 아오시마에
있는 다치바나 호텔에 들어가니 로비
에 李三俊과 하라 타다아키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하라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
다. 金國日은 이들과 만나자 반갑다
는 듯이 「야 여기서 만났구먼」하고
말했다. 李三俊은 「어디 가 있었는
가, 그동안 몇시 찾았다. 오늘 여기
서 잘까 다른 호텔에 가서 잘까?」

라고 말을 받았다. 辛光洙가 「아직
잘 시간이 멀었으니 산보나 나가자
고 했다. 李三俊도 하라에게 산보나
함께하고 오라고 권한 후 호텔 계산
대로 계산하려 가는 시늉을 하였다.

하라는 산책에 선뜻 응해 왔다.
辛光洙와 金國日은 술에 취한 하라
를 부축해 호텔에서 나와 술을 향해
나가다 뒤를 돌아보니 李三俊이 호텔
에서 큰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
는 모습이 보였다.

辛과 金은 산책하는 양 하라를 데
리고 해안으로 나와 접선시간인 9시
가 조금 지난 시간에 접선장소인
오시마 해수욕장 북단 소재 아동공원
의 남쪽 끝 작은 도량에 이르렀다.
갑자기 네명의 북한 전투원이 나타났
다.

소에 밀봉 수용됐다. 강도 높은 조사
를 통해 하라의 신원 사항, 학·경
력, 가족 관계, 거주지 이동 사항,
파거의 생활 등 모든 것을 상세히 밝

납치성공을 확인한 金國日은 채빨
리 솔발쪽으로 달려가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辛光洙는 북한 전투원 네명을 따라

각종 학회 세미나 인센티브 기업 연수 프로그램에

경주 조선호텔이
손꼽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아십니까?



1. 우수한 연회 세미나 설비
2. 품격 높은 서비스
3. 정통 고급 요리
4. 국제 규모 38홀 골프 코스
5. 신라 천년 고적 관광

사우나·헬스클럽
신장개관



경주조선호텔
조선칸트리클럽

- TEL: 경주 (0561) 745-7701
- FAX: 경주 (0561) 40-8349

- 서울 (02) 753-0300
- FAX (02) 752-6323
- 부산 (051) 246-9219
- 대구 (053) 254-5936
- 광주 (062) 522-2211
- 대전 (042) 254-4555

하라는 수상한 자의 출현에 술이
깼는지 깜짝 놀라며 물시 경계하는
눈치였다. **辛光洙**가 「우리 회사 배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배를 타고 우리
사장 별장에 가자»고 말하며 하라를
안심시키려 했으나 하라는 뒷걸음질
을 치며 도망치려 했다. 북한 전투원
이 달려들어 몸부림치는 하라에게 순
식간에 재갈을 물리고 손과 발을 묶
은 뒤 그를 자루에 넣어 8인승 대형
고무보트에 던져 냉었다. 북한 전투
원들은 일제 말을 하지 않고 기계적
으로 농수하게 움직였다.

하라 타다아키를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간 **辛光洙**는 그해 11월 일본으로
다시 창투할 때까지 하라 타다아키로
완전 변신하는 데 주력했다. 하라 타
다아기는 평양 근교 동북리 3호초대
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辛光洙는 1980년 11월 26일 하
라를 납치했던 아오시마 해안 해수욕
장을 통해 세 번째 일본에 침투했다.
辛光洙는 다음 해인 1981년 5월
말, 李吉柄의 소개로 알게 된 方모의
협조를 받아 하라 타다아키 명의 여

반항하자 재갈을 려자루에 넣어

리 솔발쪽으로 달려가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辛光洙는 북한 전투원 네명을 따라
자루에 달린 하라를 고무보트에 실고
약 5백m 해상 밖에 대기하고 있던
소형선박으로 갈아탔다. 소형선은 물
위를 날듯이 전속력으로 달려 약 1
시간 후 공작 모선에 도달했다.

이들은 4일 후 아침 7시쯤 남포
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辛光洙는 1980년 11월 26일 하
라를 납치했던 아오시마 해안 해수욕
장을 통해 세 번째 일본에 침투했다.
辛光洙는 다음 해인 1981년 5월
말, 李吉柄의 소개로 알게 된 方모의
협조를 받아 하라 타다아키 명의 여

소에 멀봉 수용됐다. 강도 높은 조사
를 통해 하라의 신원 사항, 학·경
력, 가족 관계, 거주지 이동 사항,
과거의 생활 등 모든 것을 상세히 밟
혀냈다. **辛光洙**는 실지어 하라의 중
국 요리 조리법까지 배웠으며 운전면
허를 받기 위해 운전교습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안기부 수사진에 잡혔을
때 하라의 신원사항을 상세히 적은
미동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권·운천면허증·인감등록증·국민전
강보·현증 등을 발급받아 하라 타다아
키의 부과 신분을 획득했다.

그는 그후 회계원 기계수리공 등
위장직업을 갖고 활동을 했다. 辛光洙
는 하라의 명의로 된 여권으로, 스
위스·프랑스·소련·중국 등을 거쳐 이
후 네 차례 북한을 왕래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간첩 활동을 벌였다.
그가 85년 2월 方모를 대동하고,
국내 공작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잡히기까지 어떤
간첩 활동을 벌였는지 상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재일교포 12명
을 그의 조직에 끌어들여 일본과 한
국에 간첩망을 구성했으며, 국내에
거주하던 예비역 장교 李모씨도 팀
스피리트 훈련계획을 빠내 전달하는
등 그를 위해 간첩노릇을 했었다는
정도로 끝내기로 하자.

金國日의 증언

辛光洙는 지난 85년 6월 말 경찰로
송치됐다. 그는 88년 6월 대법원에서

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염려스러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생각하기도
두렵고 괴롭습니다. 내가 안기부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88년 12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가 비전향
사형수이면서도 무기로 감형된 데는
재판 과정에서 법행 사실을 전혀 부
인하지 않고 순순히 자인했던 점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
다. 나는 지난 6월 4일 그를 만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면회 신청
을 했다. 하지만 그는 면회에 응하지
않았다. 담당이 처음엔 일반면회라고
했으나, 그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감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만나자는 전갈을
넣었으나, 그는 그렇다면 더욱 안나
가겠다고 버티더라는 것이다.

대전교도소엔 대부분 간첩 혐의로
형이 확정된 좌익 장기수 50여명이
수감 중이다. 辛光洙는 다른 좌익수
들과 그리 자주 접촉하는 편은 아니
라고 한다. 교도관들에게도 「내가 북
쪽에서는 차관급 대우를 받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책은 별로 읽지 않는 편이
나, 요즘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

는 게 교도소 측의 얘기였다.
金國日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 15년형을 받았으나, 국
내 실정을 잘 모르는 재일교포였다는
사실이 참작돼 7년으로 감형됐다.
그 후 작년 5월, 盧泰愚 대통령 방일
기념으로 있었던 재일교포 간첩들에
대한 특사 때 풀려나왔다.

金國日은 1980년 8월부터 1
985년 4월 안기부에 의해 잡힐
때까지 한국을 17번 왕래하면서 부산
지역 해안 경비초소 경계 상황, 미군
과 한국군 주둔상황, 김해 공항 시설
및 군경 경비 실태 등 각종 정보를
탐지해 辛光洙에게 보고했었다.

金國日은 한국을 드나들다가 한다
방 종업원과 사귀게 되어 그 사이에
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일본의 본처
에게 선 자식이 없었다. 金은 현재 국
내 한 지방 도시에서 새로 만난 부인
과 딸을 데리고 살고 있다. 새 부인
은 그가 검거된 직후 딸을 낳아 혼자
기르며 옥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기자를 만난 金國日은 자신의 가

족을 위해서라도 내신원사항이 알려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와 만나 한 시간 동안 이야
기 있는 니시아라이(西新井)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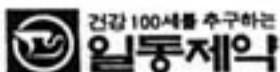
지난 85년 일본 경찰에 적발된 이
사건은 일본에 침투한 북한 간첩이

십이지장궤양치료제 위염·위궤양

• 위산분비차단, 위점막 보호작용
 • 1일 1~2회 간편한 복용 (300mg)
 • 계발 방지요법 : 1일 1회 (150mg)

큐란

표준소매가격 : 150mg 60정 44,000원
 300mg 30정 43,000원



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염려스러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생각하기도 두렵고 괴롭습니다. 내가 안기부에서 진술했던 부분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대로 써 주시고, 제발 잊고 싶은 과거를 내 입으로 다시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또 한국 실정도 잘 몰라 어찌 살아야 할지 생활기반도 못 닦은 터에 나이 어린 딸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10년만 더 살았으면... 내가 지은 죄가 주위에 알려지면 딸 자식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못 살게 되

면 어디 땐 데 갈 곳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신원사항이 알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와 만나 한 시간 동안 이야 기했다. 이튿날 전화통화도 한번 했 다. 그는 하라 타다아키 남자 전에 대해 「부끄러운 과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대로(안기부 발표) 쓰면 된다」고 했다. 「하라 타다아기는 남 치사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니시아라이 사건과 흡사

나는 일본에서의 취재를 통해, 하라 타다아키 납치와 아주 유사한 점

이 있는 니시아라이(西新井)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지난 85년 일본 경찰에 적발된 이 사건은 일본에 침투한 북한 간첩이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일본인 여권을 사용하여 외국을 드나들며 각종 공작 활동을 하다, 겹거 직전 도망가고 하수인만 잡힌 거물 스파이 사건이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알려졌지만 한국에서는 생소한 사건이다. 니시아라이 사건에 등장하는 북한 간첩朴(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은 하라 타다아키를 북으로 납치하고 그 신분을 도용, 간첩 활동을 한 후 광범위 똑같은 수법을 썼다.

일본의 한 출판사가 내는 「수사연구」란 잡지는 이 사건 전모를 상세히 소개한 적이 있다. 「수사연구」는 일본인들도 구입할 수는 있으나 주로 경찰들만이 보는 잡지다. 1986년 10월호 수사연구에 실린 「니시아라이 사건」이란 제하의 글은 집필자가 경찰청 경비국 의사과로 되어 있다. 이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주제를 만한 대목이 나온다.

「1985년 6월 말 한국이 검거, 발표한 〈일본인 남자 스파이 사건〉도 마찬 가지였다.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미 검거되어 재판 중인 북한 스파이 후광洙는 1980년 6월 본국으로부터 〈여령이 거의 같고 친족이 없는 일본인 남성을 북한에 보내고 그 인물로 가장해 스파이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밀입국 했다. 그후 재일 보조원을 이용해 오사카의 어느 중국집에서 일하는 하라 타다아키를 발견, 그에게 취직 자리 를 알아봐 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신용을 얻고 여행을 팽계로 미야자키의 아오시마 해안까지 데려가서 북한

으로 남치했다는 것이다. 그후 이 스파이는 하라로 가장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취득하고 해외 도항을 되풀이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던 중 한국에서 검거되었다. 「니시아라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찰청은 니시아라이 사건을 다른 글 가운데 하라 타다아키 사건을 언급하고 두 가지 사건이 매우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힘으로써 하라 타다아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남치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연구」에 실린 「니시아라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과 하라 타다아키 남자 사건의 유사점을 좀 더 살펴보자.

우선 니시아라이 사건의 주범인 북한의 거물 공작원朴은 후광洙와 마찬 가지로 일본인 행세를 했으며, 그가 신분을 도용한 고즈미 겐조(小住 健藏 당시 37세)는 아직 생사가 불명인 상태로 남아있다. 고즈미는 사찰

관 태생으로 전후 북해도에 이주, 961년경 동경에 취직차 상경 후 연락 두절됐으며 1979년 이름을 도용당한 이후 행방불명됐다.朴은 1979년 10월 고즈미의 본적을 북해도에서 도쿄로 옮겨 고즈미 행세를 했다. 1980년 4월엔 고즈미의 이름을 사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동시에 여권을 주는 데도 성공했다.朴은 1980년부터 1983년 2월 사이 말레이지아 타이

홍콩 한국 서독 등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했고, 1983년 2월 말레이지아로 출국한 이후 소재 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본 경찰은 고즈미가 「북한에 남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朴은 고즈미의 신분을 도용하기 전에는 오구마 가즈야(小熊和也 당시 37세)란 후쿠지마(福島)출신 일본인의 호적을 도용하기도 했다.朴은 도쿄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오구마를 도내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뒤를 봐 주어 신용을 얻었다. 그후朴은 그의

호적초본을 입수, 오구마 이름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취득해 1972년부터 1976년 7월 사이 프랑스 소련 등으로 세 번 여행을 다녀왔

사실이 발각될지 모른다. 오구마를 북한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구마는 병약했기 때문에 숨은 이 명령 이행을 주저했

「1977년 9월, 이시가와(石川)

현 경찰이 이시가와 해안에서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한 재일 북한인을 조사한 바

• 약 좋다고 남용말고, 악모르고 오용말자.

카네스텐 무좀치료 파트너!



카네스텐 Bayer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익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초본을 입수, 오구마 이름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취득해 197
2년부터 1976년 7월 사이 프랑
스 소련 등으로 세 번 여행을 다녀왔
다. 오구마가 1976년 7월 병으
로 사망하자朴은 더 이상 오구마 행
세를 못하고 고즈미 전조로 위장했던
것이다. 「수사연구」에 실린 글에 의
하면朴은 오구마가 죽기 전 그를 복
한으로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
다.

「朴은 더욱 신변의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진짜 오구마 가즈야를 북
한에 연행할 계획을 세웠다. 보조공
작원 金錫斗는 朴으로부터 「진짜가
일본에 있으면 언제 호적을 황령한

사실이 발각될지 모른다. 오구마를
북한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구마는 병약했기
때문에 金은 이 명령 이행을 주저했
고 그려는 사이 오구마가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구마가 사망하자
金은 朴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고 말했다.

西新井 관리자, 金勝一 여권 제공

「1977년 9월, 이시가와(石川)
현 경찰이 이시가와 해안에서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
서 체포한 재일 북한인을 조사한 바
에 따르면, 그는 「도쿄도(都) 三匯시
역소(시청)의 경비원 K씨(당시
세)를 부근 해안을 통해 북한에서 마
중 나온 사람에게 인도했다」는 취지
의 얘기를 했다. 그 후 이 북한인의
집을 수색한 결과, 다수의 암호문현
등을 압수,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내기에 이른 것이다」

위의 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니시아라이 사건에는 미야모도
아키라(宮本明)라는 주범朴과 하수
인 金錫斗의 중간글에 해당되는 간첩

이 한명 더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제주 출신으로 본명이 李京雨였다. 제주 4·3 폭동에 가담한 뒤 1949년경 일본으로 달아났다. 1964년에 처 양희현을 비롯한 가족을 복송시켰다. 그는 1970년경 차에 게 포섭되었다. 1985년 일본 경찰은 그의 아지트를 수색, 암호문을 적발했지만 그는朴과 마찬가지로 종적을 감춘 뒀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金賢姬와 함께 KAL기를 폭파했던 金勝一이 소지하고 있던 하치야 신이치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는 데 미야모도 아키라가 관계돼 있다는 점이다. 1987년 KAL기가 폭파되는 사건이 터지자, 안기부는 바레인과 아부다비의 공관 및 대한항공 지점과 협조하여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의 여권 기재 사항을 파악하여 일본 경찰에 조회하였다.

두 사람이 지목된 것은 아부다비에서 내린 대한항공기 탑승자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바레인 일국카드에 일본인이 통상하는 식으로 성과 이

지를 다 쓰거나 성만 쓰지 않고, 신이치와 마유미라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경찰은 하치야 신이치란 사람 이 일본에 살아 있는 실존인물인 것 대로 위조 여권에 적힌 이유를 일본 경찰이 조사했다. 진짜 신이치는 난 83년 8월 미야모도 아키라로부터 전자사업 확장을 위해 동남아 여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신이치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을

야모도에게 제공했다. 미야모도는 이치의 여권 발급을 대신하면서 그 위기 재사항을 북한에 제공, 金勝一의 위조권에 써먹은 것이었다. 안기부는 당시 니시아라이 사건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위조 여권 조회 과정에서 미야모도 아키라라는 이름이 나오자, 안기부는 KAL 기 폭파가 북한 공작원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였다고 한다.

야외생활의 月刊山

북한 공작원이 신분위장 등을 위해 일본인을 남치한 것으로 일본 경찰이 협의를 두고 있는 사건만 해도 여러 건이다. 그 대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지난 1978년 여름 일본 해안에서 연달아 일어난 네 건의 남녀 아베크족 중 발 및 납치 미수 사건이다. 이 사건들 의 개요부터 보자.

첫 번째 사건은 후쿠이(福井)에서 일어났다. 1978년 7월 7일 밤 9시쯤 후쿠이현 오바마(小濱) 시 번 공원에 데이트하러 나간 목공인

일본 경찰 당국은 북한의 일본에 대한 각종 철보 모략 활동 및 일본을 중계 기지로 한 한국 등 제3국에 대한 철보 모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고 파악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일본 경찰에 검거 된 소위 스파이 사건은 60여 건에 이르는데 그 중 약 80%(45건)가 북한

지무라 호오시(地村保志, 당시 23세)와 같은 마을 거주 청원 하마모토 후기(濱本富貴惠, 당시 23세)가 행방불명됐다. 이들은 오바마시 교외의

의 자전거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는 이로부터 12일 후인 8월 12일에 일어난 실종 사건. 8월 12일 가고시마(鹿兒島) 시 이케노가미조(池

직전에 살아올 수 있었다. 구사일생 한 사람은 도야마현 이미즈군 고스기 조(富山県 射水郡 小杉町)에 거주하는 회사원 도리사키 유지(島崎裕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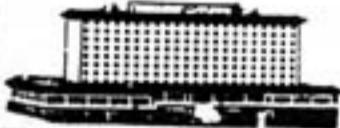
각종 학회 세미나 인센티브 기업 연수 프로그램에

경주 조선호텔이
손꼽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아십니까?



1. 우수한 연회 세미나 설비
2. 품격 높은 서비스
3. 정통 고급 요리
4. 국제 규모 36홀 골프 코스
5. 신라 천년 고적 관광

사우나·헬스 클럽 신장개관



C 경주조선호텔 조선칸트리클럽

- TEL: 경주 (0561) 745-7701
- FAX: 경주 (0561) 40-8349
- 서울 (02) 753-0300
- FAX (02) 752-6323
- 부산 (051) 246-9219
- 대구 (053) 254-5936
- 광주 (062) 522-2211
- 대전 (042) 254-4555

지무라 호오시(地村保志, 당시 23세)와 같은 마을 거주 첨원 하마토 후기(濱本富貴惠, 당시 23세)가 행방불명했다. 이들은 오바마시 교외의 요시이(吉井) 해안 망산(望山) 전망대에 승용차를 남겨둔 채 사라졌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달 31일 니이가타(新潟)에서 있었다. 실종된 사람은 니이가타의 가시와자키(柏崎) 시에 사는 蓮池薰(당시 20세)과 奥土祐木子(당시 22세)。

남자는 중앙대 법학부에 다니고 있었고 여자는 미용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7월 30일 오후 6시 시내의 중앙 해안으로 데이트 나갔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현장에는 남자

의 자전거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는 이로부터 12일 후인 8월 12일에 일어난 실종 사건. 8월 12일 가고시마(鹿兒島) 시 이케노가미조(池之上町)에 있는 전전공사(電電公社) 직원인 이치무라 슈이치(市村修一, 당시 23세)와 부근 모 회사 여사원 마스모도 루미꼬(増元 球子, 당시 24세)는 이날 오후 7시쯤 「저녁 노을을 구경 간다」며 가고시마현 히오 키군 후키아게하마(鹿兒島県 日置郡 히오)에 나간 후 행방불명됐다. 해안에 역시 이들이 타고 나간 승용차만 남겨져 있었다.

마지막은 도야마(富山)에서 일어난 남자 미수 사건으로 이들은 납치 일본에 있었고 있다. 구사일생 직장에 살아올 수 있었다. 구사일생 한 사람은 도야마현 이미즈군 고스기 조(富山県 射水郡 小杉町)에 거주하는 회사원 도리사키 유지(島崎裕仁, 당시 27세)와 다카오카시(高岡市)에 사는 학생 사하쿠 사도미(佐伯 さとみ, 당시 20세)였다.

8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다카오 카시의 시마오(島尾) 해안을 산책하고 있던 두 사람은 정체불명의 남자 네명에게 금수를 받았다. 피한들은 도리사키의 두 손을 뒤로 하고 수갑을 채운 채 발을 묶은 후 수건으로 입을 끌어막았다. 입에는 다시 특수 한 재갈이 물려지고 머리에 자루를

사하쿠도 역시 두 손을 뒤로 묶고 수건재같이 물린 후 머리에 자루가 씌워졌다. 피한들은 두 사람을 부근 술집에 따로 숨겨놓았다. 약 30분 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때 부근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과한 네명이 사라졌다. 이들은 간신히 결박을 풀 수 있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한들은 당시 30대 중반으로 모두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말을 일절 하지 않았으나 동양인이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피한들이 현장에 놓고 간 수갑과 부대가 일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경찰청은 내전의 사건을 종합 분석·검토한 결과, ① 실종 세 건에는 자살·가출·사고사의 가능성은 없다. ② 어느 케이스나 해안에서 행방불명됐다. ③ 1978년 여름에 집중되고 실종 상황이 휴사하다. ④ 피해자는 네 건 모두 20대의 젊은 커플이었다. ⑤ 해안에서의 실종은 그해 여

롭 이전에도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 범죄 그룹에 의한 범행이라고 단정·형사국이 지휘하여 사건의 주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었다.

「사건 현장은 이제까지 외국 정보 기관의 스파이가 상륙한 적이 있는 해안에 가깝고 사건 전후에 검문당하지 않은 외국 선박이 현장 가까이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유력 정보도 있다. 또 78년 여름은 외국을 발신원으로 하는 스파이 연락용의 피전파가 급격히 증가했었다는 사실이 경찰청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수사는 현재 범인들이 왜 젊은 아버크 쌍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는지 그 동기와 목적, 범인 그룹의 조직·배후 해명에서 진전되고 있다. 이제까지 조사로는, 도야마의 현장에서 외제 유류품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과 범행 수법이 맞아떨어져 외국 정보기관이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강력해지고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베크를 살해하고 그 호적을 입수, 무언가 공작에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하라 범인에게도 여자 납치 지령

일본 해안에서 젊은 남녀가 실종되었다. 남자 범인인 金國日도 북한 공작당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보낼 여자를 몰색 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온해(다구치 야에코) 가 실종된 것도 같은 해 6월이었다.

金國日이 1978년 평양에서 약 20일간 밀봉교육을 받은 후 「45~50세 가령의 남자와 함께 20대의 일본 여성은 물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金國日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털어 놓은 바에 의하면, 그는 평양에서 둘 까지 계속해서 북한으로부터 적당한 일본여자를 구해 보고하라는 무전지

령을 받았다.

• 1978년 5월 20일 23시쯤, 금

은 북한 방송을 통해 「약속사업인 냉방기(일본인 여자를 지칭) 한 대를 즉시 물색 그 결과를 보고하자. 드디

을 작성, 복으로 보냈다.

• 그러자 1978년 10월 4일 23

시쯤 북으로부터 「냉방기가 행방불명이면 그만두고, 신분 도용에 적합한

발표하지 않는가 하는 위문이 강해져 갔다. 하라 타다 아키가 인물이었고 오사카에서 1980년 6월 말 사라졌으며 그 이후 일본 땅

좋은 소화제 훼스탈

「훼스탈」은 육식, 채식 고루 자연스럽게 소화시켜주는 좋은 소화제입니다.



령을 받았다.
 • 1978년 5월 20일 23시 쯤, 금
 은 북한 방송을 통해 「약속 사업인 냉
 방기(일본인 여자를 치적) 한 대를
 즉시 물색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
 시를 받았다.
 • 1978년 6월 초 일자 미상 13
 시쯤 솔은 이에 대한 답으로 「냉방기
 물색 중임 물색되면 보고하겠음」이란
 전문을 보냈다.
 • 1978년 9월 20일 23시 쯤 북
 한은 무전을 통해 「냉방기를 빨리 보
 내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독촉 지시
 를 내렸다.

이때부터 金國日은 45~50세 가량
 의 무의무탁한 남자를 찾는데 주력하
 게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朴光洙
 가 직접 일본으로 잠입, 하라 타다아
 키를 납치해 갔던 것이다.
 • 1978년 10월 4일 23
 시쯤 북으로부터 「냉방기가 행방불명
 이면 그만두고, 신분 도용에 적합한
 대상을 찾아 보고할 것」이란 무전 지
 명이 떨어졌다.

이때부터 金國日은 45~50세 가량
 의 무의무탁한 남자를 찾는데 주력하
 게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朴光洙
 가 직접 일본으로 잠입, 하라 타다아
 키를 납치해 갔던 것이다.

을 작성, 북으로 보냈다.

• 그러자 1978년 10월 4일 23

발표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더욱

강해져 갔다. 하라 타다아키가 실존

인물이었고 오사카에서 1980년

6월 말 사라졌으며 그 이후 일본 땅

에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이 분명하

지 않은가? 더구나 하라 타다아키를

자칭했던 북한 간첩이 한국 수사기관

에 잡혀 「내가 하라 타다아키를 북으

로 납치했다고 말하고 있다. 198

5년 6월 악기부 발표 두 달 후인 그

해 8월 일본 경찰이 한국을 방문,

辛光洙를 직접 만나고 갔다는 사실도

나는 확인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나는 오사
 카 도착 즉시 일본 경찰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공식 접촉」은 불가능
 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사카 부

경(大阪府警)의 광보과장(廣報課長、

우리의 공보관에 해당) 이시이 마사

노리씨(石井正則)는 전화통화에서

하라 타다아키 사건에 본인이 대외

적으로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알고 있는 사실도 전혀 없다. 또 하

라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

다고 말했다.

하라 타다아키 납치사건 수사는 도

쿄에 있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

다. 하라 납치건과 같은 스파이 관련

사건에 대해선 경찰 내부의 정보통제

가 아주 심하다고 한다. 나는 오사카부

에 가기 전 오사카부경총에 마이니

치 신문의 오사카부경 출입기자를 통

해, 하라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통

취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었다.

사카부경은 즉시 도쿄 경찰청에 사

사를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찰청에서는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시를 전해 왔다는 것이다.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

해 일본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알아

내 일본 경찰의 수사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경찰은 하라 사건을 여

권법 위반, 유괴혐의 등으로 수사했

으며 지금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는 간첩 행위를 직접 규제하

는 법이 없다).

둘째, 하라 납치에 가담한 후지쓰

후지쓰(藤井) 일본 경찰이 직접 조사한

바는 없다. 단지 용의자로서 수사선

상에 올리고 주위 탐문 조사만 했다.

일본 경찰은 후지쓰(藤井) 외에도

관련자들을 지난 85년 이후 213년

간 미행했으나,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지금은 미행을 중단했으나

두 사람을 계속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셋째, 일본 경찰도 하라 타다아키

가 단순 실종된 게 아니라 납치된 것

으로 보고 있다. 한국 안기부가 발표

한 그대로일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공식 발표

를 미루고 있다.

결국, 일본 경찰 당국은 하라 타다아

아키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

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결론을 유보하

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찰이 「온해」

즉 다구치 야에코씨가 납치된 경로를

알아내지 못했으면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수

있다.

내 일본 경찰의 수사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경찰은 하라 사건을 여권법 위반, 유괴혐의 등으로 수사했으며 지금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는 간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다).

둘째, 하라 납치에 가담한 후지쓰(藤井) 일본 경찰에서 생각하면, 하라 타다아키를 납치한 王光洙와 金國日이 이미 한국 수사당국에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납치사건은 일본 땅에서 일어났고 범행에 가담한 두 사람은 아직 일본에 살고 있다. 한 일본 기자는 「한국 안기부는 정치적으로 움직이지만, 일본 경찰은 뚜렷한 증거 없이는 아무리 혐의가 있다 해도 수사하지 않는다는」고 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고무친의 하라 타다아키에게 관심을 가진 일본인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더 강하다.

부장이 주 1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실이나 보고시기가 청와대 행정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 「안기부장이 당정회의 소집도」(2쪽 2)

「온해」만 하더라도 일본 국민이 많은 관심을 쏟았던 金眞姫의 입장에서 처음 거론됐고, 가족도 살아 있다.

일본경찰은 혹시 정치적 고려에 의

의 신상에 관해서는 일본족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북한이 자행한 자국 민 납치사건에 「대범하게」 대처하는 일본 당국에 한국기자로서는 뭐라고

부장이 주 1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실이나 보고시기가 청와대 행정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